부산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출범… 블록체인 금융도시 도약"

실무자산 토큰화 거래 플랫폼 지향
부산시 연계 아이템으로 STO 선도
디지털 신분증 분야, 시민 체감률↑

지난 28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lockchain Week in Busan·BWB) 2024가 개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해 "공공이 뒷받침한 최초의 거래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8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개막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lockchain Week in Busan·BWB) 2024 개회사를 통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출범으로 부산은 블록체인 금융 도시에 성큼 다가갔다. 나아가 돈과 사람이 자유롭게 오가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분권형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로, 귀금속와 원자재, 탄소배출권 등 실물자산 위주의 토큰화 거래 플랫폼을 지향한다. 향후 토큰증권(STO)과 대체불가토큰(NFT)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도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성공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혁명이 불 것으로 보인다. 상장 가능한 모든 IP(지적재산권)들이 거래가 되기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하는 일과 연계된 아이템을 상장하고 STO(토큰증권 발행)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와 기회 발전 특구에 선정됐지만 이를 성공하려면 시민 체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ID카드(신분증)를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디지털 신분증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시민들이 블록체인의 체감률을 높인다면 중앙정부의 변화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을 앞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BWB 2024조직위원장을 맡은 박 시장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상장 평가와 시장 감시, 예탁 결제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는 거래소"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최대한 마련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WB 2024 행사에서는 부산을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도시 혁신,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도시화 프로젝트'가 발표됐고 이와 관련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대학생 서포터즈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지지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TK백년대계 핵심현안 논의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안 등
연내 가시적 성과 위한 협력 당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의 주요 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안과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안 등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현안들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경북통합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등과의 4자 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시·도의회 동의와 정부 심의를 거쳐 국회 법안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45개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홍 시장은 법안의 연내 발의를 목표로 야당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SPC 사업구조의 금융이자 부담(14조 8천억 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활용한 직접 수행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와 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 필수 조항이 포함됐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나주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첫 수확

태양광 설비 준공 기념식·벼 수확 행사

농지에서 벼를 재배·수확하고 태양광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나주지역 첫 번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첫 수확 결실을 이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5일 남평읍 남석리 하남마을에 구축한 제1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일원에서 태양광 설비 준공 기념식과 벼 수확 행사를 가졌다.

영농형 태양광은 하부 농지에서 벼 등 농작물을 생산하고 상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얻는 방식이다.

/나주(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영양군, 수비 죽파자작나무숲 인프라 확대

인구유입 위한 관광인프라 확대

영양군이 지역 대표 관광지 개발을 위해 나섰다. 영양군은 수비 죽파자작나무숲의 인프라가 확대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6일 죽파리 자작나무 잔디광장에서는 작은 마을 작은 축제가 열렸다. 자작나무숲을 찾은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파전, 묵, 잔치국수, 김밥, 비빔밥 등 제각각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 붉은 가을빛과 맞닥뜨렸다. 그리고 자작나무숲으로 가는 길에는 '카페자작'이 있다. 카페자작에는 수제도마를 비롯해 8명의 로컬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있었다.

영양군은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이다. 인구는 2024년 현재 울릉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1만5000명이며 의료, 문화, 교육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최근 3년간 영양군 출생인구는 고작 103명이며 귀농귀촌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해마다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영양군은 인구유입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가를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영양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관광두레 정준영PD는 지역컨텐츠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영양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영양군이 혁신적으로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그는 죽파자작나무숲이 인프라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곳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포항시, 제철공정 AI 자율화 기술확산 도모

2028년까지 총사업비 125억 투입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AI 자율 제조 선도프로젝트'에서 철강 분야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서울에서 열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에 참석해 참여기업 및 기관과 AI 자율 제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자율제조 기술 확산과 성공 모델을 발굴하는 데 뜻을 모으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협약에서는 ▲AI 자율 제조 선도프로젝트의 추진 및 지원 ▲성공모델 발굴과 확산 ▲AI 자율 제조와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 ▲AI 자율 제조 추진 및 확산에 관계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이번 AI 자율 제조 선도프로젝트의 철강 분야에 공모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포스코홀딩스, 뉴로메카,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지역기업 및 기관과 협력해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 제철 공정의 AI 자율화를 위한 모바일 자율로봇 기술개발과 지능형 고효율 제선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5% 수준인 제조 현장의 AI 자율 제조 도입률을 오는 2030년에는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GDP를 3%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APEC 정상회의 국비지원 요청

주낙영 경주시장이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국회에 요청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5명을 차례로 만나 APEC 필수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국비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경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 4건과 경주읍성 복원 등 18개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868억원을 건의했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목포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총력

목포시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원인은 종량제 봉투 속 칼이나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베임 사고와 청소차량의 높은 조수석에서의 잦은 승·하차, 청소차량 후미에 매달려 이동할 때의 낙상 위험 등이다.

이에 목포시는 기능성 장갑, 안전화 등 25종의 작업 보호구를 지급하고 2019년부터 후방 저상형 청소차량을 도입해 소형 및 예비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저상형 차량으로 운영 중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설공단

노사, 보수체계 합의서 최종 서명

올해 통합 2년 차를 맞은 부산시설공단 노사가 직원 근로 조건 일원화를 위한 통합 보수체계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2022년 8월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따라 새로운 조직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부산시 1호 기관 통합을 이뤘다.

공단 노·사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난 4월 통합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5일 보수체계까지 합의하며 완벽한 통합을 이뤘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시

청사 로비, 민원소통 공간으로

포항시는 시 청사 행정동 2층 로비를 리모델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 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포항시는 민원인이 방문부서를 찾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민원 상담실에서 응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번에 리모델링한 2층 로비 민원상담장은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운영 공간이 되어 행정 이용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로비를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조성해 편안한 민원 응대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